

# 제24회 광양전어축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

광양시는 제24회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별헤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을 주제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맨손 전어잡기 체험,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 전국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사생대회가 있다. 이외에도 배알도 섬정원과 별헤는 다리의 야간 경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인 9월 12일에는 혼성 3인조 포크그룹 '판도라'의 공연과 전어가 요제 예선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국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사생대회,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전어잡기 체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어잡이 소리' 시연, 해상 전어잡이배 시

## 별헤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

연, 초대 가수 손빈아·목비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백일장·사생대회 시상식, 전어잡기 체험, 주민 자치 단체대회, 전어가 요제 본선이 열리며, 인기 가수 김양·박성현의 축하공연으로 축제가 폐막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상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 진행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정병욱 가옥 앞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하루 3회씩 '하늘과 바람과 별과詩'가 있는 음악 버스킹이 열려 라이브 연주와 시 낭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전어 한 접시를 맛볼 수 있는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 맛볼 거리 모

두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망덕포구는 광양 진월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 2호선을 이용하면 접근이 용이하다. 축제 기간 동안 망덕 먹거리타운 거리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전어조형물이 있는 행사장 입구 인근의 임시 주차장과 진월초등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기춘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전어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무더위 대비 그늘막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광양의 대표 축제로서 가



축, 친구, 연인 모두가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고소한 전어를 함께 즐기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나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국비 지원 확대, 지방비 부담 완화...복구사업 탄력 기대

전라남도 나주시가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8월 6일 정부로부터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 지방비 부담 완화,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나주시는 복구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도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유실, 주택 및 상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총 15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합동조사단은 피해 현장을 정밀 조사했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보조율이 상향되고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24개 간접지원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3개 항목의 국가 차원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힘든 시기를 견뎌오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1만여건의 피해 신고를 내 일처럼 쟁긴 읍면동 및 재난관리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피해 직후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포로 복구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 등 후속 조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복구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진도군이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진도군, 행복한 육아의 첫걸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호평

### 전문간호사가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와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진도군보건소의 전문간호사 2명이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신청자에 대해 입부 등록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건강평가 후 서비스

를 진행하며, 기본 방문과 지속 방문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주요 서비스에는 ▲산전, 산후 건강상담 ▲영유아 발달 단계별 건강검진 및 발달지원 ▲모유 수유 및 영양관리교육 ▲산후 우울, 양육 스트레스 예방 상담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있다.

사업 참여자 중 한 산모는 "보건소에서 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육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서적 지지는 물론, 남편도 육아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해줘서 막막했던 육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첫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강과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 보육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61-540-69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순천드라마촬영장, '펫 교복체험' 연중 무료 운영

### 우리 강아지, 오늘은 교복 입고 드라마 속 주인공!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해줄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8월부터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펫 교복체험' 서비스가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펫 교복체험'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교복을 입고 드라마촬영장 곳곳을 산책하며, 1960~80년대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감성 체험이다.

체험은 촬영장 내 마련된 반려견 전용 복장 대여소인 '댕댕이 의상실'에서 진행된다. 옛 교복뿐만 아니라 한복, 선글라스, 케이프 등 다양한 소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운영된다.

교복을 입은 반려견과 함께 옛 골목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이 체험은 반려인들

에게 정서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9월 중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 중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시 관계자는 "드라마촬영장을 배경으로 반려견과 함께 교복을 입고 산책하는 체험은 순천만의 감성을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순천을 대표적인 반려친화 여행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됐으며,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 고흥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최종 선정

###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으로 정주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예비지역 지정 이후,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고흥군은 이번 시범지역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19억 원 등 3년간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고흥군은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고흥미래교육벨트'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성장 ▲고흥형 교육생태계 구축 ▲산·학 연계 글로벌 교육 ▲정주형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특화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고흥군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값진 성과"라며, "교육청과 대학,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인재가 고흥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은 연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환경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완도군,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완도군은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어업인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며 살림·육아 등 가사 활동의 이중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 건강검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여성 어업인 500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51세 이상(1974. 12. 31. 이전 출생) 여성 중 어업 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맨손·나잡어업 종사자이다.

다만 지난해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받았거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

자는 제외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1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대상병원 또는 금일미취통증의학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여성 어업인들을 위해 8월 19일(노화, 보길도)과 20일(소안)에 이동 검진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 어업인들이 적기에 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 멋진 나를  
더 크게 웃을 것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질 수 있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